

since 1986

SUNBO FAMILY

2011년 4월 20일 해양 및 육상모든 전문 조우량 상장기업

vol. 89 2011년 6월 15일

World Best
SUNBO Family

선보공업(주) 선보유니텍(주) 선보이머텍(주)

홈페이지 www.sunboind.co.kr

E-mail sunbo@sunboind.co.kr

대표전화 051-261-3454

본사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517-2

사 출 항상 생각하여 최선을 다하자

우리 회사 '2011 부산 국제 하프마라톤 대회' 참가...

건강도 체크하고 동료애도 키울 수 있어 일석이조, "다음에는 모두 함께 뛰어요!"



지난달 22일 우리 회사는 오전 9시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린 '부산 국제하프마라톤 대회'에 총 50여 명의 인원이 참가했다. 매년 연 2회씩 국제신문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을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우리 회사는 올해도 참여해 직원들의 건강증진과 대회를 통한 단합심 등을 다졌다.

대회 당일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직원

들은 마라톤을 완주하며 업무로 인해 피로해진 몸 상태를 점검하고 동료들과 함께 달려 다시 한 번 동료애를 도모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마라톤과 관련해 경영지원팀 임기봉 준비위원은 "준비과정에서 홍보가 조금 덜 된 것 같아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율이 생각보다 낮아 아쉬웠다. 보다 많은 직원들

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면서 가족단위의 참여도 더욱 많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회사 차원에서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원도 하고 애사심이나 단결 등을 다질 수 있기에 앞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한편으로는 평소 회사에서 업무 할 때와는 다른 직원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돼 보람찼다"고 했다.

이 날 완주에 성공한 설계부 민병철 과장은 "개인적으로 매년 참가 하고 있다. '마'라톤도 좋지만, 완주 후 함께 뛰어도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면서 "많은 직원들이 다음 기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신의 건강도 체크하고 동료애도 키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우리 회사는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승자가 되기 위하여 안전한 작업장 구현, 자재절약, 정리정돈을 구호가 아닌 사실 하나 하나의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어 공모전을 실시했다.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총 97개의 표어가 접수되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아래 공모전이 진행됐다. 안전, 자재, 정리 등 3개의 부문으로 경합을 벌인 이번 표어 공모전은 전 공장 공장장 및 부서장의 심사를 거쳐 다득표를 받은 공모작 순으로 순위가 주어졌다. 심사 결과 총 16명의 수상자에게는 1위 10만원, 2위 5만원, 3위 3만원 등 총 시상금 108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하였다.

각 1위작을 살펴보면 안전 표어 부문에서는 운영팀 사원의 표어인 '찾아내자 위험요인 개선하자 작업환경', 자재절약 표어 부문에서는 이수진 사원의 '첫호선에 원가절감 후속선에 대박일세'가 1위를, 정리정돈 표어 부문은 황수영 사원의 '내가 일한 작업공간 내가 쓰는 내집처럼'이 뽑혔다. 1위를 비롯해 2, 3위 수상작들은 현재 각 공장별로 순위에 관계없이 각 공장의 상황에 맞는 표어들이 게시되어 있다. 게시된 표어들을 보고 우리 전보인 모두 이를 단순한 구호에 멈추지 않고 가슴속에 되새겨 1등 기업 이 되는 초석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안전 표어

- | | |
|---|--|
| 1위 찾아내자 위험요인 개선하자 작업환경 | 군산 운영팀 |
| 2위 방심하면 잊히고 반복되면 대형사고
지킴이를 안전사고 어근권을 위협한다 | 차성오 팀장
양수경 사원 |
| 3위 작업복은 단정하게 보존하는 안전하게
대형사고 평생후회 조심조심 평생행복
내가 지킨 안전수칙 지킴이를 돌아온다
우리가 지킨 안전수칙 우리가 지킨 안전행복
내가 지킨 안전수칙 내가 지킨 가족행복 | 구명 김유미
이기환 계장
구명 김지훈
조자현 사원
한태영 과장 |

■ 자재절약 표어

- | | |
|---|------------------|
| 1위 첫호선에 원가절감 후속선에 대박일세 | 이수진 사원 |
| 2위 생각하며 설계하고 확인하며 생산하자
발로차면 원가절감 줄는순간 원가절감 | 유병창 계장
이기환 계장 |
| 3위 내가 지킨 자재행나 내 정년 보정한다 | 한태영 과장 |

아껴쓰자 믿고 믿고 즐기고 대박일세
내가 내린 스위치 하나 하나지 절감의 원천이다
손 모아 원가절감 마음 모아 경영혁신
내돈이다 생각하고 대신하면 차대보자

■ 정리정돈 표어

- | | |
|---|--|
| 1위 내가 일한 작업공간 내가 쓰는 내집처럼 | 황수영 사원 |
| 2위 미루지도 시작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 조영희 계장
설계 윤태웅
최 철 사원 |
| 3위 정리정돈! 안전과 원가절감의 초석이다
내가 지킨 귀찮음에 대응료가 시고난다
정리정돈 습관화는 내가 먼저 실천수행
정리정돈 생활화로 작업환경 개선한다
생각, 생각, 생각 왜? 여기어? 이것어?
눈감고도 정리정돈 일등기업 따는 당신 | 이경식 팀장
GD테크 김동현
GD테크 김동현
최정서 부장
전형남 과장 |

문화생활 지원 연극 '돌판'



우리 회사는 직원들의 일과 후 문화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을숙도문화회관에서 개최 중인 연극 돌판에서 티켓을 요청자에게 한에 2매씩 지급하였다.

이 외에도 토요 뮤직 점프, 이별의 부산 정거장 등의 티켓을 무료로 지급하여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번 티켓 지급으로 평소 직장생활에 소홀하기 쉬운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한편 우리 회사는 각종 공연, 영화, 티켓지급 및 도서지급 등 직원들의 문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본사 설계부 이전 및 리모델링 ... “분위기 바뀌니 일할 맛 납니다”



지난달 17일부터 공사를 시작한 본사 설계부의 사무실 이전 및 리모델링이 이달 초 완료됐다. 이로써 종전의 협소한 공간과 불편한 동선, 업무환경 등이 개선되면서 설계부 직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작업반장인 쿠마루 황지석 대리는 “공사 기간 소음과 먼지 때문에 직원들의 건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고통을 보담 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설계부 이전의 총괄 책임을 맡았던 장호신 차장은 “이번 설계부 이전의 주요점은 팀워크와 이사순서였다. 효율적인 배치와 동선이나 공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수정과 보수를 통해 최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고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공사를 하며 많은 작업에로서할과 변수가 존재했지만 따뜻한 일정 속에서

공사를 마무리한 황지석 대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불편사항이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귀 기울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설계부가 이전한 자리는 전에 식당이 있던 자리였다. 사내식당이 독상으로 옮겨가면서 그 자리를 설계부가 들어간 것인데 이전의 설계부에는 없던 창문이 생겨 실내조도나 분위기가 상당히 밝아졌다. 이재광 계장은 “동선이 불편하고 폐쇄적 공간이었던 이전 사무실에 비해 지금은 탁 트인 분위기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 동료들 사이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고 했다.

우리 회사는 금번 설계부 이전을 통해 업무효율성 증대와 실패비용의 감소, 작업분위기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꾸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보다 좋은 성과를 거둘 것을 기대하고 있다.

Inside SUNBO 회사 소식

3공장 업무효율과 비용절감 위해 부품 교체 실시

고무 가스켓(RUBBER GASKET)에서
오링(O-RING)으로 교체



제3공장은 스테인리스 제품의 누수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의 고무 가스켓(Rubber Gasket)제품을 오링(O-ring)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고무 가스켓의 경우 각기 다른 크기와 모양 때문에 일일이 찾아야하는 번거로움과 구입 후 재고관리비용 증가, A/S비용 등의 부차적 비용 등이 추가 발생해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판단에 모든 제품에 호환이 가능한 오링으로 교체를 실시했다. 오링은 구매비용과 관리비용을 동시에 절감시키며 모든 제품에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단축에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까지 한 달여 정도 교체작업이 진행 중이며 점진적으로 오링제품으로 교체작업을 확대할 예정이

다. 이로 인해 기존 고무 가스켓의 한계를 해결하면서 누수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링으로 교체시 부식과 오염, 기능저하를 야기시키는 누수현상을 최대한 제거할 수 있고 앞서 언급했던 바와같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성인 과장은 “현재는 고무 가스켓과 오링으로 동시 가공 하고 있으나 오링의 비율을 보다확대시켜 전면교체를 할 계획이다”며 “이번 교체를 통해 업무효율성 증대, 편의성, 비용절감 등 많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Life 좋은 말

나는 과연 “회사 우울증” 일까?

스트레스를 축처럼 달고 사는 직장인들. 최고의 자리에 오른 CEO도, 신입 사원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스트레스다. 최근 사회적으로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한 사회 문제가 등장하면서 스트레스 관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직장인의 69%가 회사에 즐겁게 일하는 회사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스트레스는 인재 관리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즐겁고 건강한 회사생활을 위한 스트레스 경영에 대해 생각해 보자.

회사 우울증 자기 진단표

회사에서의 하루가 힘들다면, 간단한 자기 진단을 해보자. 아래 문항을 읽어 보고, 지난 한 달 동안 나의 생각과 느낌이 가장 가까운 칸에 표시하여 점수를 합산하면 된다.

■ 경도(10점~15점): 특별히 직장 내에서 우울증 증상 또는 질환의 징후가 보이지 않거나 적절한 수준이며, 유지 및 예방의 노력이

요구된다.

■ 중도(16점~30점): 회사 우울증 증상이 경미하게 보이고, 주의가 요구되는 단계로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 고도(30점 이상): 높은 수준의 회사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및 조언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심리적인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기 관리에 나서야 한다.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을 통해 육체와 정신의 건강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의 스트레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치료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스트레스는 초기에 치료할수록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적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치료 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설문내용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내 작업은 미래가 불확실해서 불안하다	1	2	3	4
업무가 항상 많아 시간에 쫓기고 힘들다	1	2	3	4
내 실력이나 경력보다 직책이나 급여가 불합족스럽다	1	2	3	4
상사나 부하직원, 동료와의 관계 때문에 불편함이 있다	1	2	3	4
직장에서 내 기쁨과 생각없이 웃거나 말을 하는 편이다	1	2	3	4
직장에서 주변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며 경기에 민감하다	1	2	3	4
즐거워하던 우울하거나 짜증스럽다	1	2	3	4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참증이 많다	1	2	3	4
즐거워하던 더 빨리거나 무가력하다	1	2	3	4
회사에 있을 때 건강이 불편함(소화불량, 변비, 설사, 목통, 두통, 빈뇨 등)이 자주 느껴진다	1	2	3	4



부산의 메카! 해운대를 즐기자!

올해는 날씨가 유난히 변덕스럽다. 봄이 언제 오는가 싶더니 어느새 한여름 같은 무더위가 갑자기 찾아왔다. 무더운 날씨에 맞춰 부산지역 해수욕장은 지난 1일 모두 개장했다. 주말이면 몇 십만 인파가 해수욕장을 찾고 있다. 바야흐로 바다의 계절이 다가온 것임에는 틀림없다.

보는 재미, 즐기는 재미 해운대

과창한 6월 둘째 주 해운대를 찾았다. 평일이라 그런지 한적한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커다란 모래 조각들이 해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국내외 아티스트들이 직접 제작한 모래 조각 작품들은 연신 관광객들의 시선을 누르며 만들었다. '모래 성으로 떠나는 동화 여행'이라는 주제로 백사장에는 인어공주, 걸리버 여행기, 짝과 콩나루 등의 동화 속 주인공들이 모래 조각의 형태로 모두를 반기고 있었다. 밤이면 모래조각 주변으로 조명이 켜져 색다른 느낌을 주기도 하니 꼭 낮이 아니라도 밤에 해운대를 찾아 아이들과 연인과 즐기기를 바란다.

또 몇몇 조각들은 색깔을 덧입혀 '샌드 그래픽'의 신선



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보는 재미만 있는 게 아니다. 즐기는 재미가 더해져 직접 모래를 다져 작품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체험까지 할 수 있다.

동백섬에서 해운대라는 지명이 탄생

해운대 해수욕장을 즐기고 근처 동백섬으로 향했다. 해운대의 북적거림이 싫다면 곧바로 동백섬을 둘러도 좋다. 동백섬은 해운대에 위치한 아름다운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도심에서 자칫 잃어버리기 쉬운 낭만적인 풍경을 이곳에서 맘껏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 지이자 APBC 정상회담이 열린 누리마루가 있는 곳으로 역사와 현재가 공존한 곳이다. 이 석각은 신라 말의 시인이자 학자였던 고운 최치원 선생이 썼다고 전한다. 신라 말 시인

최치원이 어지러운 경국을 떠나 이곳을 지나다가 자연 경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대를 쌓고 바다와 구름 달과 산을 등미 하면서 주변을 거닐다가 암석에다 해운대란 세 글자를 등각함으로써 '해운대'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하니 동백섬에 가면 이 암석을 한 번 들여다보며 함께 온 가족, 연인과 이 유적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 구름다리, 인어공주상, 잘 만들어진 산책로 등은 동백섬에 발길을 들여놓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중에 한가지다.

사실 부산인이라면 해운대와 동백섬을 기본지 않은 사람을 손에 꼽을 정도이지만 이곳들을 방문할 때마다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 주저 말고 가족과 연인과 손을 잡고 가볍게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찾아보길 추천한다.

Inside SUNBO 우수 협력사 탐방



조조, 장비가 아닌 유비를 꿈꾸는 HKC

다고 한다. HKC라는 회사명은 직장생활을 할 때 존경하던 사장님이 운영한 한경산업에서 따온 이니셜이라고.

선보와는 2010년부터 연을 맺어왔다. 본래 그 전에도 연을 맺은 적이 있지만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 선보와의 거래를 하며 지금은 선보와의 거래액이 20% 정도로 총매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김 대표는 "항상 고마움 마음이다. 자재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 우리도 항상 최선을 다해 선보의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의 개인적 사업적 목표는 바로 '유비'다. 삼국지를 즐겨 읽는다는 김 대표는 "장비의 뛰어난 능력도 좋지만 유비의 '덕'이 더 마음에 든다"며 "사람을 향한 삶을 살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사업적 관계라도 인화(人和)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 관란하거나 조금 무리한 부탁은 단호히 거절한다고 한다. "물론 급한 건 알고 있지만 열려 OR를 하고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거래하는 양자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이다"며 사람과 사람간의 약속을 강조했다.

이런 김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며 가장 힘들 때는 언제일까.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 지금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인력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가끔 인력에 공백이 생기면 직접 현장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꾸준히 일이 들어오고 공장이 돌아가면 기분이 좋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때 개인적으로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기분 좋을 때를 떠올렸

다. 월급을 받을 때 직원들의 표정을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다는 김 대표는 "나이, 성별, 국적이 상관없이 직원들을 보살펴주고 싶다. 서로 동료애를 갖고 일 해나가는 게 소박한 소원"이라고.

앞으로 사업 확장이라는 미래를 그려며 회사를 운영하는 김 대표는 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해 매일 공부하며 전진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끝으로 "호하를 말하지만 HKC와 선보가 '상생관계'를 유지하며 '윈-윈'하는 연을 꼭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Life 최은택 성공의 과정과 책

아메리카 자전거 여행 - 흥은택 -

최은택의 미국 횡단 자전거 여행기. 저자가 2005년 5월 28일부터 8월 13일까지 80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트렌스 아메리카 트래일'을 따라 6400km를 주행하며 미국을 횡단한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담고 있다. 또한 미국 횡단 자전거 여행을 하고 싶어하는 라이더들에게는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여정, 여행에서 만난 라이더들과 미국인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총 6부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2005년 5월 20일부터 2008년 4월 14일까지 '한겨레신문'에 연재한 글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책 뒷부분에는 1978년 미국을 횡단한 당시 라이더들의 사진도 수록하고 있다.

저자는 10개 주를 건너고, 대륙분기선을 14번 통과하고, 영하 1도에서 영상 43도까지의 온도와 해발고도 0m에서 3483m까지의 높이를 넘나드는 동안 여행이 불필요한 것들을 걸러낼 뿐 아니라 필요한 것들도 줄여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자전거를 타고 로키산맥에 올라 여행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고 한다.



Run SUNBO Run **상상 현실의 소리**



구경공장 **장동일** 조장

"저, 인터뷰..."
기자를 만난 장동일 조장의 첫마디였다. 그를 만나지 못해 구경공장이

찰나의 희열감이 나를 일하게 만들죠!

곳저곳을 두리번거리던 기자에게 쑥스러운 듯 다가와 건넌 한마디였다. 사실 너무도 아재하고 쑥스러워 인터뷰를 수차례 거절할까도 고민했지만 뜨거운 날씨에 기다려던 기자가 인쓰래왔던지 못으며 반갑게 인터뷰에 응해 준 장동일 조장은 2008년 10월에 입사해 올해로 4년째 구경공장에서 일하고있다.

배관 라인에서 일하는 그는 팀으로 일하기 때문에 항상 즐겁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요즘 같이 날씨가 더워지는 때면 더욱 팀원 간 호흡이 중요하다고며 팀원들과의 돈독한 팀워크를 일을 즐겁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꼽았다. 최근에는 작업량이 많아져 더욱 서로에게 의지하게 된다고..."

평소 정직함을 가장 큰 신념으로 삼는 장동일 조장은 "인생을 살아가며 느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정직함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도 항상 정직하게 살 것을 강조한다고 했다. 더불어 책임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이 일을 하다보면 책임감 없이는 절대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든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러한 그의 신념의 결실이 맺을 때는 어떤 때일까, 바로 그가 작업해 온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다. "여러 난관들이 있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제품을 선적할 때면 큰 희열을 느낀다. 그 짧은 순간의 희열감을 맛보기 위해 이토록 일하는가 보다"라고 했다.

한편 인터뷰 내내 연신 "정적이 무뎠다며 원래 말주변이 없다"며 기자에게 미안함을 내비친 그는 끝으로 자신에게 고마운 분이 있다며 웃을 띄웠다. 그가 처음 입사하면

때 현장업무가 낯설어 우왕좌왕 하고 있었는데 그에게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도와준 이가 있었다. 그가 바로 김승조장이었다. 장동일 조장에게 김승 조장은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주신 분"이자 "저의 모토"라고 한다. 장동일 조장도 후에 후배가 들어오면 꼭 김승조장처럼 도움을 줘야겠다고 다짐했다.

팀원들과 즐겁게 일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장동일 조장. 완성품이 선적될 때의 그 짜릿한 희열감을 맛보기 위해 그는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Run SUNBO Run **강장 릴레이**



대대2공장 **장철민** 팀장

이런저런 칭찬 릴레이 주인공이 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약역을 맡은 게 주효했나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펼칠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였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오히려 현장에서 팀원들에게 피곤한 팀장이었던 것이 아닐까요.

칭찬 받는 악역! 전철민 팀장을 만나다!

약육을 잘 지키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최대한 이해하자 등 진소리를 쏟아내니 팀원들이 아부로 뽑아준 것 같습니다. (웃음) 뜻밖이라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감사드립니다.

Q 언제부터 선보인이 되었나요?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세요.

2003년 1월부터 입사해서 올해로 8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현재는 자재지원팀 팀장을 맡아 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는 팀이보니 예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기일을 지키려 하고 있고 신속하게 자재를 조달해드려고 싶지만 자재공급 시기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이해하고 웃으며 일하면 보다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팀을 이끌어 나갈 때 어떤 점을 가장 신경쓰시나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제는 눈빛만 봐도 책 하고 일하는

는 센스가 모두 없어서 굳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금세 눈치 채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한다는 점에서 팀워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굵은 일이라도 협동심을 가지고 함께 헤쳐나가면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항상 안전에 신경 쓰고 서로 도와가며 일하고 있습니다.

Q 개인적 혹은 업무적으로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공통적으로 저는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 건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팀원들도 어디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팀원들의 가족들도 모두 건강했으면 합니다. 모두가 건강해야 걱정이 없고 일할 때도 일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바람이 더 있다면 자재 공급일을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물론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금만 더 저희의 고충도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Run SUNBO Run **축하합니다**

생일

대대공장
 경영지원 한태경(8/20), 이동해(8/22)
 기술지원팀 김재희(8/8)
 1공장 김동성(8/1), 안두열(8/10), 허인성(8/10), 안태두(8/10)
 2공장 서경일(8/20)
 3공장 최병희(8/24)
 생산부 김광진(8/20), 정수영(8/10), 김민우(8/22), 김광진(8/20), 박기연(8/30), 이경호(8/20), 정근우(8/10)
 설계팀 정호진(8/10)
 고객지원 이상익(8/10)
 생산관리 김태희(8/10)
 설계팀 이태우(8/10)
 영업팀 김재민(8/10)
 품질 문경은(8/10)

구경공장
 김지훈(8/29)
 생산관리 김원우(8/10), 김태희(8/20), 김태연(8/24)
 생산부 김지훈(8/10), 정병영(8/10), 유규희(8/14)

영도공장
 김지훈(8/14)
 조연우(8/20)

입사기념일

대대공장
 최상익(8/2)
 경영지원 안정민(8/2)
 사업기획 장정민(8/2)
 해상사업팀 가말 배(8/2)
 설계팀 유시호(8/7)
 설계팀 박형우(8/20), 최선영(8/22)
 설계팀 김동진(8/7)
 고객지원 신영민(8/24), 김현민(8/24), 김대환(8/10), 안태두(8/10)
 1공장 김광진(8/20)
 2공장 김광진(8/20)
 3공장 최일영(8/1)

Run SUNBO Run **안전번 과정의 "늘린 그림" 찾기 - 5곳이 있습니다**

